

김광현 “우승이 목표... KT 꼭 잡겠다”

대권 잡으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팀으로 지목
개인전적 3승3패로 부진... 올해 ‘심기일전’

‘돌아온 에이스’ 김광현(SSG)은 KBO 리그에서 불고 싶은 타자를 꼽아달라는 요청에 “없다”고 했다. 대신 특정팀을 언급했다.

김광현이 지목한 팀은 ‘디펜딩 챔피언’ KT 위즈다.

김광현은 16일 오후 인천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열린 SSG 랜더스 입단식 후 기자회견에서 “일단 KT는 이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막내 구단인 KT는 지난 시즌 전반기의 강호들을 모조리 뒤로 두고 창단 첫 패권을 거머쥐었다. 큰 전력 누수가 없는 올해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된다.

지난 시즌 6위에 그친 SSG 또한 올해 패권에 도전한다. 무모한 목표는 아니다. 국내 최고의 좌완인 김광현이 돌아왔고, 추신수와도 재계약 체결했다.

지난해 갑작스런 부상으로 쓰러졌던 박종훈과 문승원도 6월 복귀를 목표로 재활에 한창이다.

KT가 여전히 견고한 전력을 자랑한다는 전제 하에 SSG가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KT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 김광현의 생각이다.

김광현은 “KT가 작년에 우승했는데, 우

리가 우승하려면 이겨야 한다”면서 “KT를 이겨야 우승할 수 있으니 꼭 이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SSG가 새 출발 첫해였던 지난 시즌 KT에 호되게 당한 것도 에이스의 책임감을 끌어올리는 요소 중 하나다.

SSG는 지난해 KT와의 16차례 대결에서 고작 2승을 거뒀다. 두 차례 무승부를 빼면 무려 12번이나 졌다. 시즌 전체 64패 중 20% 가까운 패배를 KT 한 팀에 당한 것이다.

김광현 개인적으로도 KT에 갇아야 할 빛이 있다. 김광현은 그동안 10차례 KT전에 나서 3승3패를 거뒀는데, 평균자책점이 7.60에 달한다. 김광현이 10경기 이상 던져 3.50이 넘는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상대는 KT가 유일하다. 2019년 9월15일에는 9회 2사에서 컨디션 점검차 갑작 구원 등판했지만 첫 타자 황재균에게 홈런을 허용해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SSG와 KT는 개막 두 번째 시리즈인 4월 5일부터 수원에서 3연전을 치른다. 하지만 김광현과 KT의 만남은 이후에나 생사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은 “그때는 (내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도 나는 나가서 이기고 싶다”고 웃었다.

스카이데일리/뉴스



3년 만에 KBO 리그로 돌아온 김광현이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열린 SSG 랜더스 입단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



‘케이콘 2022 프리미어’ 포스터.

CJENM

케이콘, 2년8개월 만에 오프라인 행사

2년여 만에... 5월부터 한·미·일 공연 재개

최대 규모의 한류 페스티벌 ‘케이콘(KCON)’이 2년8개월 만에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연다.

17일 주회사 CJ ENM에 따르면, 케이콘은 5월 ‘케이콘 2022 프리미어’로 K-컬처 팬들을 찾는다. 7일과 8일 한국 서울을 시작으로 14일과 15일 일본 도쿄 마쿠하리메세, 20일과 21일(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 로즈몬트 시어터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2019년 9월 케이콘 이후 2년여만의 오프라인 행사 재개다.

행사는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및 10월 일본 도쿄로 이어진다.

CJ ENM은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케이콘을 개최한 이후 북미, 중동, 유럽 등 전 세계 9개 도시에서 110만 명 이상의 K-컬처 팬들을 모았다. 또한 지난 2년간 다섯 차례의 온라인 행사 ‘케이콘택트(KCON:TACT)’를 통해 2245

만명의 관객을 디지털에서 만났다. CJ ENM은 케이콘 10주년을 맞아 올해부터 대대적인 변화를 꾀한다.

가최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CJ ENM은 “오프라인 관객과 디지털 관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CJ ENM 음악콘텐츠본부 김동현 컨벤션라이브사업부장은 “2012년부터 CJ ENM은 북미, 유럽 등지에서 케이콘을 꾸준히 진행하며, 글로벌 2세대와의 소통에 앞장서왔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달라진 트렌드를 반영, 올해부터 디지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기획으로 시공간을 극복하며 더욱 많은 팬들이 연중 KCON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16일(현지시간) 영국 브라이튼의 팔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브라이튼과의 16라운드 순연 경기 후반 12분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은 해리 케인을 축하하고 있다. 손흥민은 침묵했고 토트넘은 2-0으로 승리했다. 뉴스

손흥민 또 골 침묵... 팀은 브라이튼 꺾고 4위 추격 희망

로메로·케인 연속골로 2-0 승리... 아스널과 승점 4점차
‘95골’ 케인, 루니 제치고 EPL 원정 최다골 신기록

손흥민(30)이 선발로 나서서 80분을 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브라이튼을 꺾고 4위 진입 희망을 살렸다.

토트넘은 17일(한국시간) 영국 아렉스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브라이튼과의 2021-22 EPL 16라운드 순연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해리 케인, 데얀 콜루세브스키와 함께 스

리톱으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35분까지 뛰다 루카스 모우라와 교체됐다. 팀 승리를 도왔지만, 기대했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EPL에서 11골 기록하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1골을 포함하면 공식전 12골이다.

지난달 26일 리즈 유나이티드와 27라운

드, 8일 에버턴과 28라운드에서 정규리그 2경기 연속 골 맛을 봤던 손흥민은 13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9라운드에 이어 2경기 연속 침묵했다.

이번 경기는 지난해 12월 치를 예정이었으나, 당시 토트넘 선수단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연기돼 이날 치러졌다.

토트넘은 전반 37분 콜루세브스키의 왼발 슈팅이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맞고 골결정 행운의 선제골을 터트렸다.

이어 후반 12분에는 케인이 추가골을 터트려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케인은 이 골로 은퇴한 웨인 루니(94골)

를 넘어 EPL 역대 원정 경기 득점 1위(95골)에 등극했다.

또 리그 12골로 손흥민(11골)을 제치고 토트넘 내 최다 득점자가 됐다.

승기를 잡은 토트넘은 교체를 통해 변화를 시도했고, 남은 시간 리드를 잘 지키며 승리를 따냈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리그 7위(승점 48)로 올라섰다. 4위 아스널(승점 51)과는 승점 3점 차다. 아스널은 이날 2위 리버풀(승점 69)에 0-2로 졌다.

반면 리그 6연패에 빠진 브라이튼은 13위(승점 33)에 머물렀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